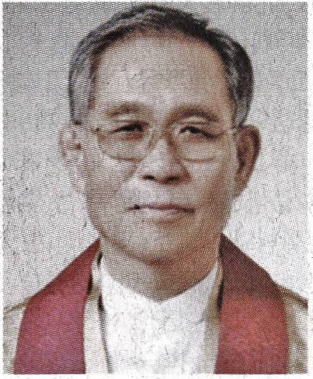




제33주기 종조 멸도절 종령 법어



오늘은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3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의 법맥을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大道)를 열어 고통에 허덕이고 무명에 가려진 일체 중생들을 모두 건져내시겠다는 커다란 발원으로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그동안 승단과 교도들이 원정 대성사님의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력을 계승하여 정진과

수행으로써 오늘의 총지종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열반일을 기리면서 종조님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입교개종의 참뜻을 천명하시어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當相即道)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제생의세(濟生濟世)하는 법이 다르므로, 특히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 물심병진법(物心並進法)을 가르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의 실천법으로써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확립하셨습니다.

승직자 및 교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져야 하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곧 생활불교라야 한다는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이는 것이 원정 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입니다. 아울러 우리 총지종의 종도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스승과 교도가 화합 단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종도 여러분들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총기 42년 9월 8일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원정대성사 열반 제33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9월 8일 원정기념관 및 전국 사원에서 봉행 예정

원정대성사 열반 제33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오는 9월 8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 원정 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봉행된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져야 하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곧 생활불교라야 한다는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 중흥의 기치를 드높이는 것이 원정 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입니다. 아울러 우리 총지종의 종도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스승과 교도가 화합 단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승직자와 교도들에게 당부했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밀교의 역사를 다시 세우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에서 일직 손(孫)씨 가에서 탄생하셨다. 일찍이 한학을 익혀 사서삼경에 능통하셨고, 일제 강점 하에 고등 교육을 이수하시고,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셨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서 대성사께서는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한국전쟁 직후, 진각

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밀교수행에 준제법을 도입하시고, 새로이 총지종을 입교개종 하면서 정통밀교종단을 이 땅에 우뚝 세우셨다.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교상과 사상에서 완벽한 밀교를 확립하고,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 전국에 사원을 건립하셨다.

대성사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의 정신은 오늘날 전국 교도들의 종지가 되어 불퇴전의 불공 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제3회 불교총지종 통일음악예술제 『정전 60주년 ‘평화를 노래하다’』 봉행 예정

9월 27-28일, 양일간 제10회 한마음 경로잔치도 봉행



▲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부산 동해중학교)

올해는 남부지방의 폭염과 중부의 긴 장마로 유난히도 힘든 여름을 보냈다. 이제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불교총지종의 다양한 가을행사가 이어진다.

먼저 오는 9월 27일 ~ 28일 양일간 제10회 한마음 경로잔치가 봉행된다. 단양 대명콘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65세 이상 교도 약 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경로법회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교도들로 행사 기간 동안 최대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최 측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종단의 화합의 장을 연다.

주최 측은 실버레크리에이션, 국악예술제, 사원별 장기자랑, 초대 연예인 공연, 온천욕 등 참석한 교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8일에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리는 제3회 통일음악 예술제에 동참한다.

9월 28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는 제3회 불교총지종 통일음악예술제가 봉행된다. 정전 60주년 ‘평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아직도 이어지는 민족의 분단과 그로인한 남, 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다문화 가정, 새터민, 서울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법음으로 하나 되기를 서원하는 예술제이다.

총지종 총리원장 법등정사는 “지난해 부산 동해중 학교 공연에 이어 올해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 된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전란의 휴유증을 모두 털어버리고, 세계가 놀랄 만 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불교 총지종은 통일음악예술제를 통해 북녘의 동포들과, 다문화가정, 새터민, 서울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법음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교도님들과 불자님들을 초대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를 수지하시기를 서원 합니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지종도 및 다문화가정, 새터민, 서울시민, 불교계 주요 귀빈,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이 동참할 예정으로 천상의 화음으로 화합의 불꽃을 올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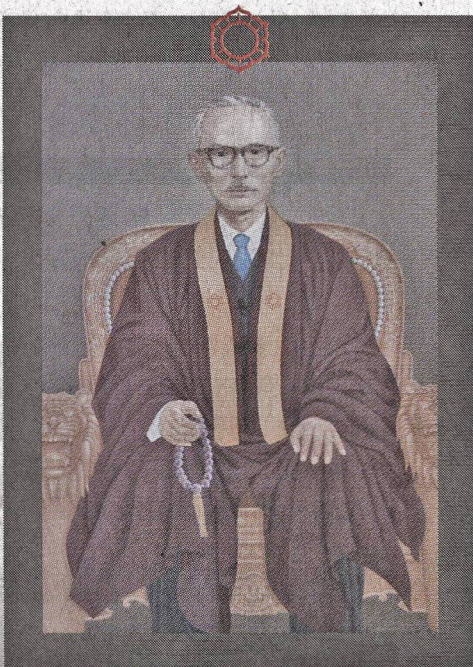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원정 대성사 제33주기 멸도절



종조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의궤(義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 제33주기 멸도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 시 총기 42년 9월 8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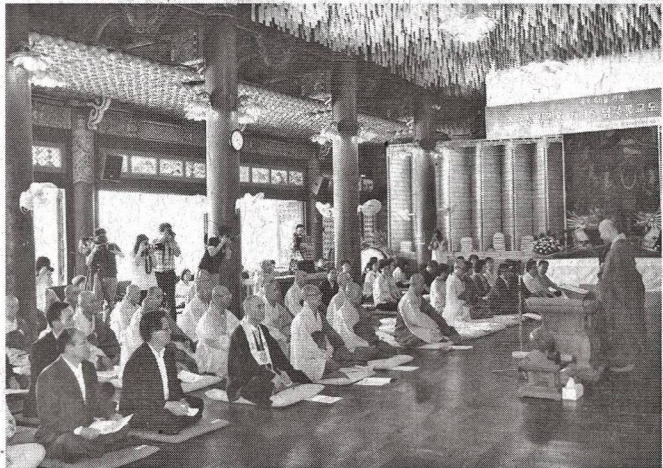
대 상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장 소 총지종 원정기념관 및 전 사원

갈등과 대치의 상황을 하루 속히 벗어나기를 서원

8월 15일 광복절

『조국평화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봉행.



▲ 봉은사에서 열린 조국평화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우리는 통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난관이 겹잡인다 해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 땅 위에 기어이 통일된 조국, 발고여락의 이면이 현실로 꽃피는 현재의 지상 정토를 일떠세우겠습니다.” 광복 68주년을 맞아 8.15 조국통일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에서 참가한 사부대중 일동이 서원한 남북 공동발원문이다.

광복 68주년 기념 『조국평화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8월 15일 삼성동 봉은사에서 봉행되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같은 시각 평양 광법사에서 동시 봉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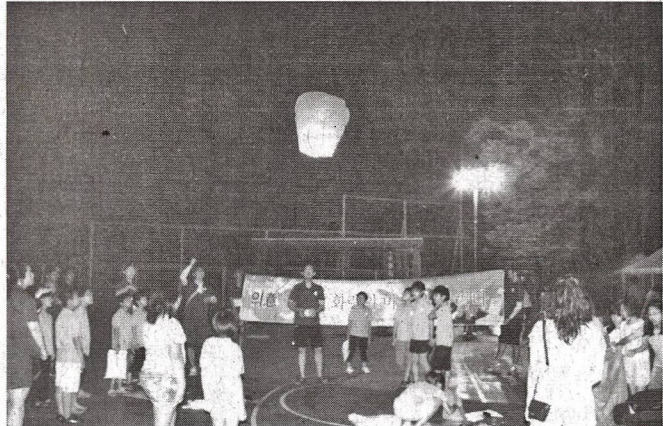
이날 법회는 불교총지종 법등 통리원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지흥 스님, 조계종에서 사회부장 법광 스님,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종훈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임수경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다.

통일기원태종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이므로 남북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를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자고 했다.

원효종 총무원장 향은 스님의 축원에 이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흥 스님은 “남. 북이 나누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에 기인합니다. 우리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현재의 가혹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으로 현실을 타개하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의 재개, 민간 교류의 활성화로 진정한 공생의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며 갈등과 대치의 상황을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서원했다.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축사에 이어 이기흥 조계종 중앙선도회장의 남북공동발원문 낭독으로 남북동시법회는 마무리 되었다.

봉은사=김종열 기자

진각종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신라역사캠프’ 성료



▲ 진각종 청소년 신라역사 캠프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 초·중·고교생 청소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대학교와 후원심인당 등 경주일원에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신라역사캠프’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삼국을 통일

로 이끌었던 신라의 중심인 경주지역을 탐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신라의 화랑정신과 한국불교의 특징인 호국불교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각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른 인성을 유도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육감(六感)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청소년들은 “경주에 처음 온 것도 개인적으로 기쁘는데 지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기뻐다”면서 “내년에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꼭 참가하고 싶을 만큼 좋은 추억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진각종 사회부장 호당 정사는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역사탐방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이었다”며 “탐방과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천태종중앙박물관 개관

단양 구인사 입구. 연면적 2,864평 규모



▲ 천태불교중앙박물관 개관 테이프 절단식

불교천태종중앙박물관(초대관장 보광 스님)이 8월 25일 개관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충북 단양군 백지리 구인사 입구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불교천태종중앙박물관(이하 천태중앙박물관) 낙성법요식 및 개관식을 봉행했다. 박물관은 1만730㎡(3,246평)의 부지에 연면적 9,468㎡(2,864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소장 문화재는 1만 5000여 점이며, 이 중 151점이 전시된 상설 전시실이 먼저 관람객들을 맞는다.

낙성법요식에 앞서 천태중앙박물관 헌관 제막식과 오픈 테이프 절단식이 열렸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원로원장 윤덕스님, 총무원장 도용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보문종 기획실장 급주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등 이개관 테이프를 절단 했다. 이어 사부대중 1만 5천 여 명이 참석한 낙성법요식이 특별 무대에서 봉행되었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개관식 기념사에서 “박물관은 종단 역사 자료 정리와 천태교학 연원을 체계적으로 관석하는 성소가 될 뿐만 아니라 천태종의 과거·현재·미래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낙성의 소감을 말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바다보다 깊은 지혜, 태산보다 높은 공덕이며, 제불보살 조사님의 크나큰 위신력 이어라. 오탁악세 구류종생 구원하시라 한량없는 그 몸 나누시는 구나. 실상의 참 세계는 한 모양도 없으나 가지가지 형상을 자제하게 나타내는구나. 모습 없는 모습을 보고 소리없는 소리를 들어라”고 법어를 설했다.

감사원장 총관 스님은 고불문에서 “박물관은 그 역사와 가르침을 집결하여 인연 중생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환희의 도량이 될 것이니. 이로부터 천태종자가 드러남이 해와 같고 달과 같아 중생계가 다 하다록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불보살님과 제대조사님이시여! 불교천태종중앙박물관의 일익번창과 천태종의 만대창성을 길이 굽어 살피시고, 일체중생의 해탈도도를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불교천태종중앙박물관 개관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천태종은 그간 전국에서 멸실 위기에 처한 불교유산을 찾아 확보하는 등 선대의 뜻을 소중히 했고, 10년 정성으로 오늘 성대한 개관을 하게 됐다”며 “박물관이 불교문화 전승·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 정경준 국회 정각회장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설문식 경제부지사 대독), 김동성 단양군수도 축사를 통해 박물관 개관을 축하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하루 전 24일 저녁 천태종은 박물관 앞 특별무대에서 개관 전야제로 제1회 천태예술제를 개최했다. 전야제는 송해 씨의 사회로 송대관, 태진아 등 유명 가수 및 코미디언, 천태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해 온집한 1만여 사부대중을 흥겨운 한마당으로 이끌었다. 단양 구인사=김종열 기자.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만해대상 수상 상금 전액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액기부



▲ 만해대상을 수상한 일면스님

제17회 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자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이 수상금 300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생명존중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활성화 기금과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회향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액 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데 주력하고,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 기부를 계기로 만해스님의 정신을 담아 전 세계인이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총기정보를 이웃과 함께 합시다.

구독신청 _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화 _ 02)552-1080 E-mail _ jukah@paran.com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강순시	8/14	10,000
건화사방생기금		8/6	200,000
관성사	박현숙	7/26	10,000
관성사	황성녀	7/30	10,000
관성사	인선	8/19	20,000
기로대관		8/19	10,000
기로대자행		8/19	10,000
기로밀공정		8/19	10,000
기로법수원		8/19	10,000
기로법장화		8/19	10,000
기로법지원		8/19	10,000
기로불멸심		8/19	10,000
기로사홍화		8/19	10,000
기로상지화		8/19	10,000
기로수증원		8/19	10,000
기로총지화		8/19	10,000
기로해정		8/22	10,000
단음사	법연지	8/14	10,000
만보사	박선희	7/30	10,000
만보사	정덕순	7/31	10,000
만보사신정회		8/7	300,000

밀인사	정정희	7/30	5,000
밀인사	이채원	8/12	10,000
밀인사	이연주	8/12	10,000
밀행사성도회		8/9	100,000
벽룡사	무명씨	8/14	10,000
벽룡사	무명씨	8/14	10,000
벽룡사	양정민	8/14	10,000
벽룡사	양정현	8/14	10,000
삼밀사	일각정	8/8	10,000
삼밀사	하명순	8/16	10,000
삼밀사	서령	8/19	10,000
삼밀사	오혜민	8/19	10,000
선립사	심지장	8/22	10,000
수계사	안주화	8/5	10,000
수인사	김봉기	7/26	10,000
수인사	무명씨	8/5	10,000
승천사	원봉	8/12	10,000
승천사	지선행	8/12	10,000
시법사	선도원	8/19	10,000
실보사	이순옥	7/31	10,000
실지사	송우섭	7/29	5,000

실지사	월명심	7/31	10,000
운천사	이성미	8/9	5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7/26	30,000
일원어린이집			
	하미영	7/26	10,000
일원어린이집			
	이지민	7/26	10,000
일원어린이집			
	서선숙	7/26	10,000
일원어린이집			
	최복란	7/29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7/31	10,000
일원어린이집			
	이찬규	8/6	10,000
일원어린이집			
	김지영	8/24	10,000
정각사	박후회	7/26	10,000
정각사	박후회	8/21	10,000
정각사	구정희	8/22	20,000

제석사	안용준	7/31	100,000
제석사	안용준	7/31	200,000
지인사	지성	8/12	10,000
지인사	승효제	8/12	10,000
지인사	허성동	8/20	30,000
총지사	법등	8/6	30,000
총지사	김병관	8/8	10,000
통리원	김지영	8/6	5,000
해정사	최영례	8/20	10,000
화음사	강순란	8/2	5,000
흥국사	지정	8/12	20,000
	정은선	7/31	10,000
	박종석	7/31	20,000
	김갑선	8/19	10,000

7월26일부터 8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삼밀사 관세음보살 입상 건립 봉안 발원

불교총지중 부산·경남교구(교구장 시정 정사) 부산 삼밀사(주교 서령 정사)는 사원 앞마당에 관세음보살 입상 건립을 서원하고 본격적인 모연에 들어갔다.

삼밀사 주교 서령 정사는 “관세음보살 입상 건립 봉안은 삼밀사 신도들의 오랜 서원이었습니다. 신정화와 깊은 논의를 거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려 합니다. 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모연 동참을 발원 합니다.”며 봉안 불사의 의지를 밝혔다.

삼밀사 김화자 신정회장은 “부산 영도에 자리한 정통

진언 밀법도량입니다. 그 동안 많은 스승님들이 교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희 사원에 관세음보살 입상 건립을 통해 다시 한 번 교화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며 이번 건립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삼밀사는 총기10년 9월 25일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1가 122-1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불단을 개설, 설단불사를 봉행했다.

“삼밀사 관세음보살 입상 건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동참 방법은 5면 하단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지사 신축 건립 지진불사 봉행



▲ 실지사 신축 지진불사 개토제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범우 정사)는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실지사에서 신축 건립 지진불사를 봉행하였다.

통리원장 범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 등 집행부와 서울·경인교구 스승님, 실지사 인명화 신정회장 등이 동참한 이번 불공은 범우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총지중 정통 지진불사의례에 따라 실지사 신축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사가 증만하기를 서원했다.



▲ 실지사 신축 조감도

실지사 주교 범우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강북의 중심 사찰로 오랜 시간 교도들의 염송정진이 끊이지 않은 실지사의 신축으로 더 나은 수행 환경으로 교화의 새로운 터전이 되기를 서원 합니다. 동참해 주신 스승님, 교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라고 실지사 신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서원했다. 실지사는 연면적 195평의 2층 건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조감도 참조)

실지사-김종열 기자

“자비의 참 뜻을 되새기며”

충청·전라교구 방생기금 만다라요양원전달

충청·전라교구(교구장 환수원)는 8월 12일 만보사에서 개최된 교구회의에서 지난 7월 16일 방생법회에 모금된 방생기금을 만다라요양원에 전달하였다.

방생기금은 사바세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고, 고통을 나누는 이타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방생법회에 모금된 금액일체를 만다라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다. 충청·전라교구 환수원교구장은 “부처님의

참 뜻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보시야말로 진정한 불제자의 도리이며, 인간방생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만행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다라요양원 지정정사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충청·전라교구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후원금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물리치료를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정심사 개축 완공불사 봉행



▲ 새로 개축한 정심사 서원당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범우 정사)는 8월 26일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정심사(주교 화령 정사)에서 개축 완공불사를 봉행하였다.

통리원장 범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 등 집행부와 서울·경인교구 스승님 등이 동참한 이번 불공은 정심사 주교 화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총지중 정통 불사의례에 따라 정심사 개축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지력으로 살펴주신 부처님 전에 불공으로 회향하였다.

정심사 주교 화령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심사는 내. 외부를 새롭게 단장하고, 교도들이 더욱 염송정진수행에 정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수행 환경 조성으로 서울 동북부 교화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서원 합니다. 오를 동참해 주신 스승님, 교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라고 정심사 개축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정심사는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도색, 주차장 정비를 통해 새로운 수행환경을 조성했다.

정심사-통리원 장동욱 과장

일원어린이집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더위를 식혀

‘영유아 경제교육’, ‘성폭력예방 인형극’, ‘미각교육’ 등 열려



▲ 강남구보건소 주최 ‘미각교육’

불교총지중 사회복지기관 산하

일원어린이집(원장 하재희)은 8월 무더위에도 건강과 지식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원아들의 교육에 성의를 다하였다.

8월 13일에는 우리은행 일원동지점 교육담당 은행원이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영유아 경제교육’을 열었다. 원아들에게 저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심어줌으로 성장 후에도 건전한 경제생활의 밑거름 심어주었다.

꽃말을, 열매, 나무 (만3세~5세) 유아 들은 8월 20일 굿네이버스와 강남구

보건소 공동주최로 대치4동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관람했다. 유아들은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과 위험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인형극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8월 22일에는 강남구보건소에서 주최하는 ‘미각교육’ 참여 시설로 선정되어 단비영양사가 방문 하여 원아들에게 미각(단맛)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을 열었다.

사회복지재단-김지영 교무

동해중학교 제149차 이사회 개최

신임 감사에 마산 윤천사 도현 정사 선임

학교법인 관음학사(이사장 지성 정사) 동해중학교 제149차 이사회가 8월 28일 학교 법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장 지성 정사와 인선 정사, 선도원 전수, 정인화 전수, 강경중, 정영문, 박정선 이사가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으로는 교사 전과 승인의 건과 임기만료 법인 감사 후임 선임 건이다. 이사회는 수학 담당 교사였던 송인근 교사를 진로상담교사로 전과 하는 것을 승인 결의하고, 후임 감사

에는 마산 윤천사 도현 정사를 선정했다.

이사회는 종립 동해중학교가 지속적 으로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육성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동해중-법선 사무국장

9월 주요일정

· 9월 8일 제 33주기 종조 멸도절

· 9월 27일 ~ 28일 제 10회 경로법회

· 9월 28일 제 3회 통일음악 예술제



제10회 경로법회

총기 42년 9월 27일~28일(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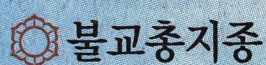
제10회 총지중 경로법회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경로, 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한 이번 법회에는 레크레이션, 국악공연 관람, 사원별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 소 : 단양 대명리조트

준 비 물 : 세면도구와 여벌의 옷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2동 776-2) · 불교총지중
Tel: 02-552-1080~3 www.chongji.or.kr

불교의 선정 21

사념처 수행

수념처-느낌[受]으로부터의 해탈

受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

수행자가 수념처를 닦을 때는 마음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느낌[受]의 변화과정을 관찰하여야 하는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을 여실히 알고록 해야 하며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좋을 때는 좋다고 알아차리고 불쾌할 때는 불쾌하다고 알아차리며 느낌이 좋지 않나쁘지도 않을 때는 역시 그렇다고 알아차려야 한다.

느낌을 관찰할 때는 일어나는 느낌의 성질-가려운 것인지 아픈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하며 동시에 느낌에 따른 감정도 분명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인지 싫어하는 감정인지도 잘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수념처를 닦는 수행자가 여실히 관찰하고 여실히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하여 느낌의 잡된 모습을 파악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느낌 그 자체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느낌의 초월, 이것이 법락(法樂)이며 수념처 수행의 목표이다.

모든 느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무상한 것임에도 여기에 집착하고 탐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느낌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우리의 생활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욕근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좋은 느낌을 취하려는 투쟁의 연속이다. 생산활동, 경제활동이란 것도 실은 모두 욕근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술활동이나 문화활동도 모두 욕근을 통한 우리의 만족감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실은 욕근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욕근을 통하여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느낌에 휘둘리어 좋은 느낌만 가지려 하고 싫은 느낌은 배척하려는 의도가 극심해질 때는 우선 자기 내면부터 집착과 증오로 혼란스러워지고 괴로워지며 그것이 바로 확대로 이어져 그러한 대상을 놓고 갈등이 있게 된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민족 간의 전쟁도 그 뿌리에는 모두 이러한 느낌의 소유와 배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느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느낌에 과도하게 휘둘릴 때는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확대 재생산 되어 세계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 인간의 욕망의 근원은 좋은 느낌을 많이 누리려는 쾌락의 추구에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느낌을 제어하여 느낌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각으로부터 벗어나 오온을 초탈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오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간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념처의 수행이 단지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을 구분하여 느끼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느낌의 생멸무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수념처 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 느낌을 바라보며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지는가를 정념으로써 살핀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어떤 감정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하면 느낌은 그저 하연없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며 고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느낌은 그저 인연생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거기에는 느낌이 일어나는 대상도, 느낌이 깃드는 의지처도 없으며 단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느낌은 있으되 느끼는 사람은 없고 감정은 있으되 감정을 지니는 사람이 없으며 알아차림은 있으되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는 경지를 의미한다.

모든 느낌[受]은 변화무쌍하며 집착과 번뇌의 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기 때문에 수념처를 닦는 사람은 느낌이 일어나서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괴로움을 초월하려면 느낌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낌이 일어나고 한 동안 지속되었다가 이윽고는 사라지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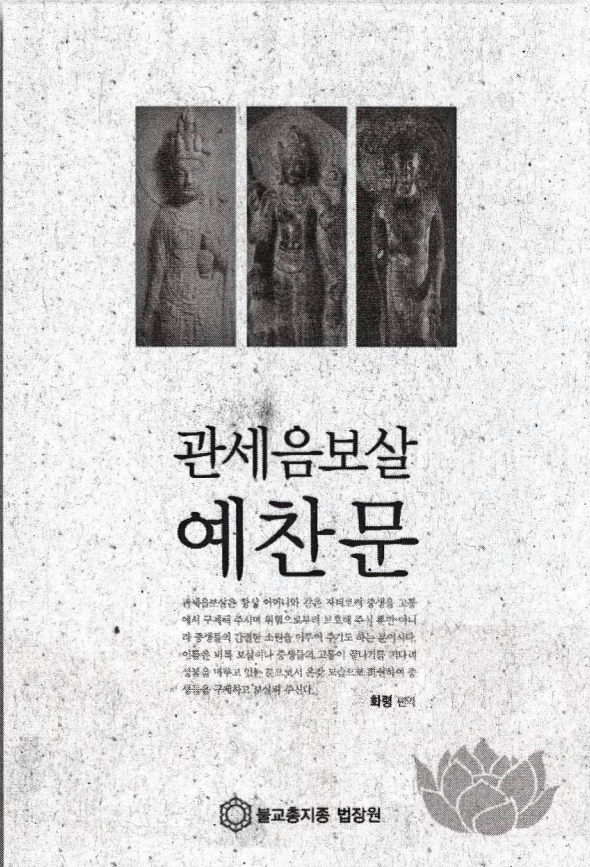
또한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주는 감정면도 세심히 살필 수 있어야 그러한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누구든지 좋은 느낌은 자주 취하려고 하고 싫은 느낌은 자주 피하려고 한다. 그러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안달하고 화를 내게 된다. 우리는 눈으로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코로는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며 혀로는 맛있는 것을 취하고 몸으로는 좋은 느낌을 느끼려고 하며 마음을 통하여 흡족함을 느끼려고 한다. 이것이 마음과 몸통이를 지닌 우리의 숙명이다.

느낌의 생멸변화와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수념처를 통하여 무상과 무아, 공성을 깨닫는 것

사념처 수행자는 신념처를 닦을 때 미세한 느낌까지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느낌에 수반한 감정까지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여 느낌의 무상, 느낌의 무아와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그 느낌에 대한 좋고 나쁨의 감정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잘 살필 수 있을 때에 느낌이 가져오는 모든 번뇌,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해탈은 이러한 것을 말한다. 느낌으로부터의 해탈을 위해서는 그 느낌의 인연생멸과 찰나생멸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될 때에 신념처의 지혜가 바로 서고 법념처의 수행과 결합하여 느낌을 초월하고 무명을 벗어나며 '나'라는 생

단지 느낌의 변화를 정념(定念)으로써 바라볼 뿐이며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마치 호수에 물결이 바람 따라 일어났다 다시 잠잠해 지는 것처럼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없는 경지이다. 이것이 수념처 수행의 핵심이다. 그저 바라보라.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속되다가 사라지는가를, 그리고 그러한 느낌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어떻게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라. 그럼으로써 무상과 무아, 공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게 된다.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 령**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음파니반메혹의 의미와 수행법

원정 대성사 멸도 제33주기 특집 종조 법설 “인 간(人間)”

생활과 교조(敎條)를 원만하고 정당하게 결부시켜야만 생활불교가 되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발달할 수록 인간은 인간성을 잃고 향락적, 타락적생활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향락은 타락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시대 만큼 인간성이 요구되는 시대도 없으며 따라서 그 가치도 높아진다. 이것은 곧 종교 활동과 종교적 신앙생활에서 인간성을 높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저마다 선(善)을 주장하지만 마음속에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는한 그것은 위선(僞善)에 불과하다. 진실한 선이란 다만 봉공(奉公)이다.

이타(利他)에 있는 것이다. 즉 소아(小我)를 떠나 대아(大我)에 봉사해야 한다.

인간의 지식의 확대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과 이기주의적으로 각축(角逐)경쟁하는 마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식이 악용되어서는 그 지식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을 평화로운 인간 영락의 인간으로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지식 그것 보다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하고 적어도 인간성과 지식을 병진시켜야 한다.

인간은 불신을 받을때처럼 무가치하고 불유쾌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불신은 자기가 초래한 것이지 상대방의 탓도 아니다. 신임을 받는 것도 자신에게 있다. 정직과 성실은 불신을 몰아내고 인간의 신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신임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가지(加持)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 인생관을 옮겨 세워야 살아야 한다. 인생관이란 그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며 그 보는데 따라서 자신의 처세문제, 어떻게 대처하며 행동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며 귀결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생관이란 하나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결되고 인생관이 지표가 되므로 올바른 인생관, 즉 그것이 옳고 그릇된대 따라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목석이나 금수(禽獸)가 아니다. 그것은 그 의식 구조의 탁월성이나 바로 잘잘못을 아는 의식의 주인공이다. 이것은 곧 가치판단으로 확대되어 의식에만 그치지않고 행동화되어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에서 재세시(在世時) 법어를 하시는 장면.

선악의 판단은 결코 전통적인 교육의 결과로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그것을 알만큼 판단의 가능성을 그 의식 기능속에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다. 단적으로 인간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간의 기본적이며 동시에 최대의 특성인 참회(懺悔)하는 마음이다. 금수는 참회하는 눈물이 없다.

이 참회없이 교육을 통한 지식만 있는 자는 그 지식을 악용하여 자기의 죄과를 합리화하려 들고 선을 가장한 위선에 기교를 부리기를 힘쓰며 진정한 선을 부정하려든다. 그러므로 인간이 된 연후에 지식을 가져야 그 지식이 자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선후분발의 원리인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본질적으로 선하기만한, 결정되고 완료된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도 어떤 사람을 그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고정된 운명에 결박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쉽고 어려운 구별은 있을망정 인간에게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형성할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보살도 되고 성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생활과 교조(敎條)를 원만하고 정당하게 결부시켜야만 생활불교가 되는 것이다. 교조를 위주로 한다면 생활은 교조의 노예가 될 것이요, 생활을 위주로 한다면 교조는 한갓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율배반(二律背反)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불설, 그것은 곧 인간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이며 그에 입각한 생활은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내세(來世)와 피안(彼岸)을 하나의 실재하는 제이의 세계라고 볼때 흔히 현실적생활을 등한시하는 현실 도피적 인간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많다. 그 반면 내세나 피안을 부정하는 반종교적 인간에게서는 현실지상으로 현실적 해결에만 급급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범죄적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 우리는 인간의 현실속에는 이미 피안성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심성에는 내세와 피안의 심층이 있다. 피안과 극락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피안은 인간의식속의 영원이며 차안은 인간의식속의 시간이다. 영원히 사느냐 시간에 사느냐가 문제다.

인간의 발전과 인류의 평화는 법율의 조문보다도, 국제조약보다도, 수다(數多)한 경율론(經律論)보다도, 인간의 가장 심오한 양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모든 경율론도 역시 성현의 양심의 소리다. 이 양심이 없을 때 망심(妄心)이 자유를 얻어 모든 죄과를 범하게 되고 이 양심이 자유로울때 망심은 제어되어 인간은 향상되고 행복하여 진다.

정진(精進)에 네가지가 있으니 생(生)하지않은 악(惡)은 생(生)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生)한 악(惡)은 속히 제멸(除滅)하며 생(生)하지 않은 선(善)은 속히 생(生)하게 하고 이미 생(生)한 선(善)은 이것을 증장(增長)케 함이라.

게을한 중생(衆生)의 닦는 사업(事業)의 공력(功力)은 미소(微少)하여서 오직 물방울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같다.

*종조법설집(宗祖法設集) P81-87 제3절 까지.

불교총지종 삼밀사 외부(마당) 관세음보살 입상 조성 권선문

성도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관세음보살 입상을 불교총지종 삼밀사에 조성하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과 원력을 구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불사의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불지위에 올라 있으면서도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손이 천이며 눈이 천이나 되시는 분으로써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을 보필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곳에 나타나시어 중생의 형편을 살피시고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분으로 관자재보살님 이라고도 합니다. 고해중생의 간절한 염원을 비추어보시고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고 불안과 공포가 없는 마음을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불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 불사는 스스로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서원과 자신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난관을 극복하기를 기원하는 호신불 불사이기도 합니다. 이차인연 공덕으로 뜻하는 바 소원이 성취되고 지혜와 복덕이 구축하여지며 자손은 창성하고 가내가 평안하여 만복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 삼밀사 주 교 : 서령 정사, 혜원정 전수
- 삼밀사 신정회장 : 김화자
- 삼밀사 부회장 : 배숙자, 하명순 외 신정회 일동
- 후견인 기로스승 : 의강 정사, 원송 정사, 인법계 전수

• 계 작 번 호

110-25-0005-939 국민은행
(불교총지종 삼밀사)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이룬 불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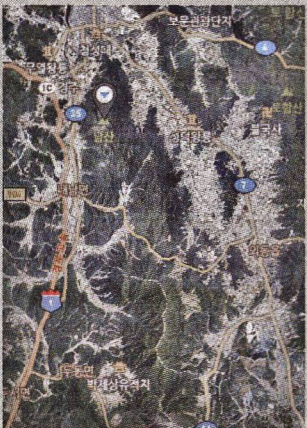
1면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慶州)

특집 순서

- 경주의 역사와 오늘
- 불국토 남산의 유적
- 진언 밀교의 흔적을 찾아서
- 불교총지종과 경주

8월 경주 한여름의 태양은 고도의 한낮을 달구었다. 대전이남 지역은 올해 유난히 더운 날씨와 가뭄으로 열대의 기후를 경험해야 했다. 거리의 가로수와 잡초마저 말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불교 유적을 품고 있는 남산은 여름의 더위와 추위를 모두 견디어 내고 천년을 지켜오고 있었다.

남산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



▲ 하늘에서 본 경주 남산지구

경주 남산(이하 남산)은 경주시 인왕동 등 4개 동 및 내남면 용장리를 포함한 총면적 1,813만 4,645㎡로 골짜기 마다 수많은 유물과 유적을 품고 있다. 일명 금오산(金鰲山)이라 불리기도 한다.

남산은 일반적으로는 북쪽의 금오산과 남쪽의 고위산(高位山)의 두 봉우리 사이를 잇는 산들과 계곡 전체를 통칭해서 남산이라고 한다. 금오산의 정상의 높이는 466m이고, 남북의 길이는 약 8km, 동서의 너비는 약 4km이다.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내린 타원형이면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정상을 이룬 직삼각형의 형상이다. 북으로 뻗어 내린 산맥에는 상사암(想思巖) · 해목령(蟹目嶺) · 도당산(都堂山) 등의 봉우리가 있고, 남으로 뻗은 산맥에는 높이 495m의 고위산이 있다.

남산의 지세는 크게 동(東)남산과 서(西)남산으로 나뉜다. 동남산 쪽은 가파르고 짧은 반면에, 서남산 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긴 편이다. 서남산의 계곡은 2.5km 내외이고, 동남산은 가장 긴 봉화골 [烽火谷] 이 1.5km 정도이다. 모두 34개의 계곡이 있고 불적은 고루 분포 한 편이나 동남산 쪽보다는 서남산 쪽이 훨씬 많은 유적이 있다.

남산은 신라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의 무대는 나정(羅井)이고, 마지막 왕 경애왕은 포석정에서 화려한 연희중 견훤의 공격을 받아 왕조의 운명을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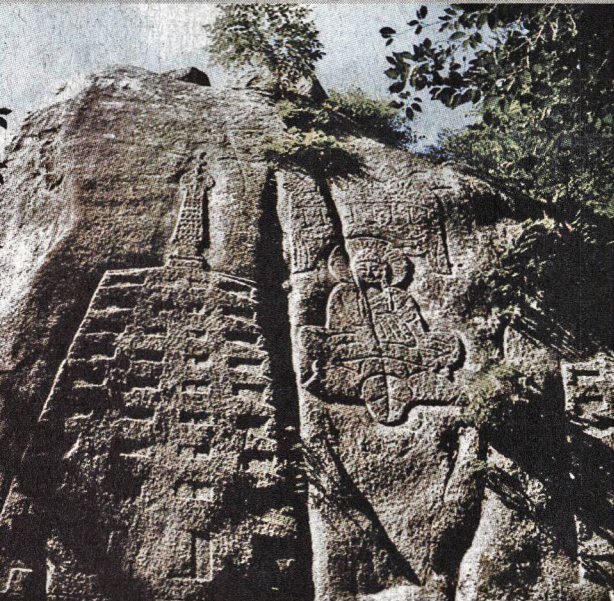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은 신라인의 산악숭배와 더불어 부처님이 상주하는 불국토로 남산을 가지력이 뛰어난 산으로 숭배한다. 이번 글에서는 남산을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나누어 주요 불교 유적과 유물을 만나보자.

동(東)남산의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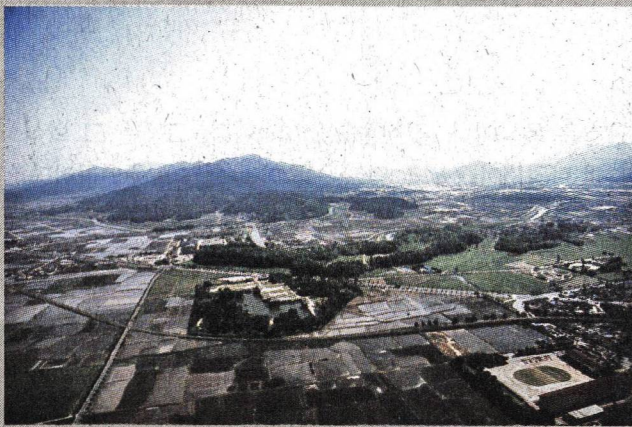
남산은 남북으로 약 8KM 뻗어있다. 산의 동쪽은 '토함산'을 마주하고 서쪽은 '망산'을 마주하며 북쪽 끝은 왕궁인 월성을 바라본다.

왕궁이 자리했던 월성에서 남산을 바라보면 먼저 만나는 것이 '상서장' (上書莊)이다. 상서장은 신라의 학자 최치원이 머무르던 곳이다. 왼편으로 도당산이 서있고 그 아래 천관사지가 있다. 김유신과의 사랑으로 유명한 천관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찰이다. 지금은 논으로 변해 탐재나 주춧돌 등 유구들만 남아있다.

상서장에서 남산리로 가는 문천가에 양지마을이 있고, 그 동편에 절터가 있다. 주춧돌 등의 유구로 상당한 규모의 사찰로 추정된다. 이 사지에는 목탑지가 남아있는데,



▲ 보물 제201호 탑곡마애조상군



▲ 경주시가에서 본 남산지구

그 규모로 봐서는 황룡사 구층목탑지, 망덕사목탑지, 사천왕사목탑지 등과 함께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목탑 유적이다.

왕정골 입구 남천(南川)의 남쪽 기슭에는 인용사지(仁容寺址)는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의 친동생 김인문(金仁問)을 위하여 지은 절이다. 김인문이 당나라와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신으로 갔다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김인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기 위하여 지었다. 당나라에서 석방된 김인문이 귀국하던 도중 바다에서 죽자, 그 관음도량을 미타도량(彌陀道場)으로 바꾸어 조성하고 명복을 빌었다. 이 절터에는 두 탑의 잔재가 남아 있다. 동쪽 탑은 첫 층의 옥개석(지붕돌)과 2층의 탑신이 없어졌고, 서쪽 탑은 탑 자리만 남아 있다. 이 밖에 팔방(八方) 대좌의 지대석(地臺石)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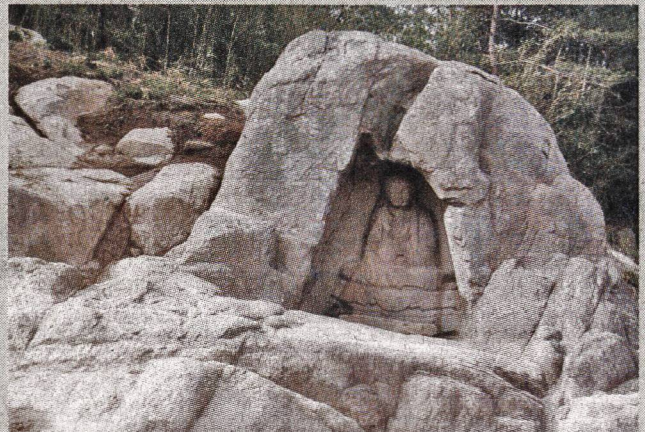
인왕리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면 보물 제198호 경주남산 불국석불좌상이 있다. 부처 골짜기의 큰 바위에 깊이 1m 정도의 되는 석굴을 파고 만든 여래좌상이다.

불상의 머리는 두건을 덮어쓴 것 같은데 이것은 귀 부분까지 덮고 있다. 상호는 둥그렇고 약간 숙여져 있으며, 부은 듯한 눈과 깊게 파인 입가에서는 내면의 미소가 번지고 있다. 이런 점은 인왕리석불좌상과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세가 아름답고 여성적이다. 양 어깨에 걸쳐입은 옷은 아래로 길게 흘러내려 불상이 앉아 있는 대좌(臺座)까지 덮고 있는데, 옷자락이 물결무늬처럼 부드럽게 조각되어 전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신라 석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삼국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불상으로 인하여 계곡 이름을 부처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다.

보물 제201호로 지정된 탑곡마애조상군(塔谷磨彫像群)은 탑골 입구에서 옥룡암(玉龍庵)으로 오르면 암자의 뒤편으로 거대한 암석에 있다. 암석의 가장 높은 북면은 높이 9m, 너비 6m이다. 동면은 높이 7m, 너비 12m이며, 서면은 높이와 너비가 6m 정도이다.

이 일대는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신인사(神印寺)란 절이 있었던 곳이다. 9m나 되는 사각형의 커다란 바위에 마애조상군의 만다라(蔓荼羅)적인 조각이 회화적으로 묘사된 것으로 밀법승 명랑법사의 신인종계통 사찰의 조각임을 알 수 있다.

남쪽의 큰 암석에는 목조 건물의 형태가 남아 있고 또한 탑재들이 흩어져있던 것을 1977년에 복원하였다. 남쪽을 향한 바위 면에는 삼존불(三尊佛)과 독립된 보살상(菩薩像)이 있고, 동쪽을 향한 바위 면에도 중심이 되는 불상과 보살 그리고 비천상(飛天像)이 있다. 그 옆으로 여래상과 보살상이 있다. 그러나 모두 마멸이 심하여 자세한 조각 수법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북쪽 면 바위에는 9층과 7층의 쌍탑(雙塔)을 배치하고, 서쪽 바위 면에는 보리수와 여래상이 있다. 이렇게 불상(佛像), 비천(飛天), 보살(菩薩), 탑(塔) 등 화려한 회화적 조각 수법으로 만다라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마애 조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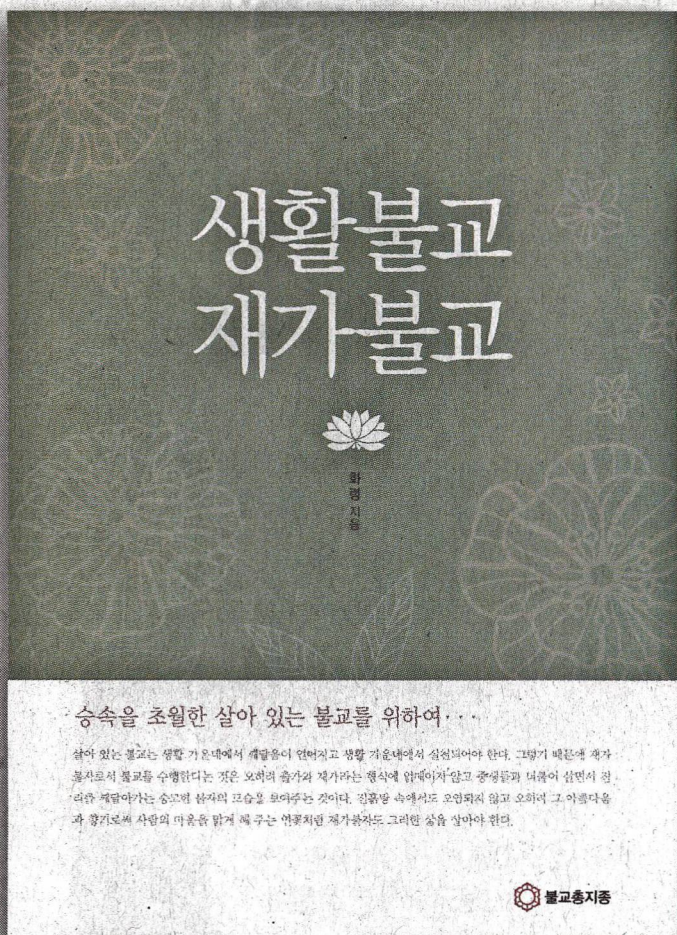
▲보물 제198호 남산불국석불좌상

현재의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뒤편 골짜기를 미륵골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보리사(菩提寺)와 보물 제136호인 미륵곡석불좌상이 있다.

전체 높이 4.36m, 불상 높이 2.44m의 석불좌상으로 현재 경주 남산에 있는 신라시대의 석불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한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생활불교 재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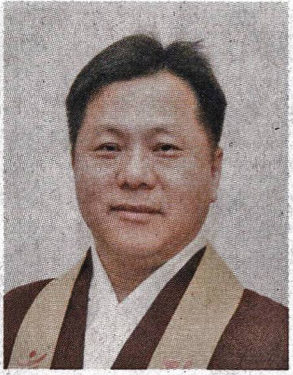
화령 저 | 불교총지종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시가 6,000원 (10권 이상)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법보시 발송니다. 법보시가 (6,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은
일체중생의 번뇌와 장애를 없애주는 보살

중생들의 번뇌와 온갖 장애로부터 구제하는 보살이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이다. 제개장(除蓋障)은 이를 그대로 ‘온갖 번뇌의 장애를 없앤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제개장보살이라 하면, 바로 일체중생의 번뇌와 장애를 없애주는 보살이다. 팔대보살(八大菩薩) 가운데 한 분이지만 일반 불자들이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제개장보살은 밀교종단인 총지종에서는 아주 중요한 보살이다.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지종의 본존(本尊)이자 중심 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설하고 있는 『대승장엄보왕경』은 바로 제개장보살의 청(請)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많은 대중 가운데 제개장보살이 먼저 관자재보살의 상서로움에 대해 물으니 이에 부처님께서는 관자재보살의 육십칠삼마지를 설하시고, 오백 삼인들을 나찰녀의 재난으로부터 구제한 일과 『대승장엄보왕경』의 공덕과 육자진언을 얻은 인연 등을 설하셨다. 그러므로 제개장보살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이 설해진 동기를 제공한 것이니 제개장보살의 문청(問請)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법설은 없었으리라.

제개장 삼매에 들어
환희와 대지혜(大智慧)로써
중생들을 구제하신다

제개장보살은 중생의 번뇌와 장애를 없애주는 보살인데, 어떻게 중생의 번뇌와 장애를 없애는가? 그것은 대지혜문(大智慧門)으로써 없앤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중생의 번뇌와 장애는 오로지 지혜로써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불보살이 지혜를 내세우고 있고 중생제도의 가르침이 자비와 지혜이다. 제개장보살 또한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지혜의 발현에 두고 있다. 지혜의 증득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며, 소원성취와 재난소멸의 가피력이 나온다. 그것이 제개장보살의 공능(功能)이자 제개장보살의 존재 이유다. 제개장보살의 이름 가운데 ‘제(除)’는 없앤다는 뜻이고, ‘개(蓋)’는 덮혀 있다는 뜻으로 중생의 번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장(障)’은 가로 막다는 뜻인데 지혜를 가로 막아 무명중생의 번뇌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개장’은 ‘가득 덮혀 있는 중생의 번뇌와 장애, 즉 개장(蓋障)을 모두 없앤다(除)’는 뜻이다. 고통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더없이 고마운 보살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고통과 번뇌를 일시에 없앨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옆에 두고 항상 모시고 싶은 분이다.

이 보살은 일체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하여 항상 제개장 삼매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제개장 삼매란 모든 번뇌와 장애를 제거하고 초지(初地)의 경지를 증득한 삼매이다. 초지(初地)는 보살의 52수행계위 가운데 41위(位)에 해당하는 것으로, 십지(十地) 중에 제1지 환희지(歡喜地)를 말한다. 환희지는 환희를 얻은 경지다. 보살이 깨달음의 경지에 아주 조금 도달할 때 일어나는 초입 단계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수행의



▲ 제개장보살상

최초 단계에서 얻게 되는 경지이다. 이 제개장 삼매를 통해 마음속의 번뇌와 장애가 일시에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제개장보살을 중생이 칭념(稱念)한다면, 그것은 곧 기쁨을 얻고 고뇌(苦惱)를 떨치는 길이다. 또 신심깊은 사람이 묘덕을 증득하므로써 얻게 되는 환희(歡喜)나 경전의 가르침에서 커다란 기쁨을 얻는 순간의 법열(法悅)은 바로 제개장보살의 삼매를 맞보는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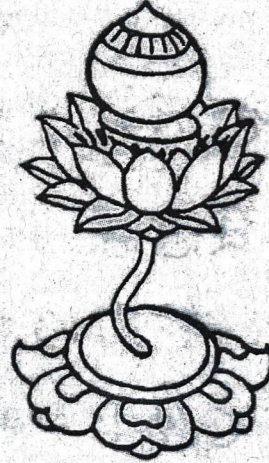
이뇌금강(離惱金剛),
‘번뇌를 떼어놓는 금강보살’

제개장보살을 달리 ‘이뇌금강(離惱金剛)’이라고 부른다. ‘번뇌를 떼어놓는 금강보살’이란 뜻이다. 번뇌가 없어지면 곧 기쁨이오 행복이다. 행복의 순간은 고통과 번뇌와 모든 장애가 사라질 때이다. 이와같이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없애고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보살이 제개장보살이다. 그래서 ‘이뇌금강(離惱金剛)’이라 하는 것이다.

이 보살을 다른 형상으로 나타내면, 대개 ‘연상보주(蓮上寶珠)’ 또는 ‘보당(寶幢)’으로 표현한다. 이를 제개장보살의 삼매야형(三昧耶形)이라 하는데, ‘연상보주’는 ‘연꽃 위의 보주(寶珠)’를 뜻하는데, 이는 곧 지혜의 완성을 의미한다. 지혜의 연꽃 보주(寶珠)로써 번뇌망상을 없앤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또다른 삼매야형인 ‘보당(寶幢)’은 보배로운 구슬로 장식된 깃발을 가리키는데 바로 중생의 발보리심을 나타낸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하면, 바로 보당(寶幢)을 들고 대지혜(大智慧)로써 중생을 인도한다. ‘보당(寶幢)’은 곧 ‘대지혜(大智慧)’로써 제개장보살에게는 중요한 지물(持物)이다. 중생들을 지혜로써 제도하기 때문에 왼손에 보당(寶幢)을 들고 있는 것이다.



▲ 연상보주(蓮上寶珠)

왼손은 보당(寶幢)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취함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취하고 있다. 오른손의 여원인(與願印)은 바로 대지혜로써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제개장보살의 발원을 나타낸 것이다.

여원인(與願印)은 중생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의미의 수인(手印)이다. 이를 시여인(施與印), 시원인(施願印), 여인(與印), 만원인(滿願印)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17)

원인은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수인(手印)이다. 손을 어깨높이로 올리고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는

시무외인(施無畏印)과 반대되는 손모양이다. 시무외인(施無畏印)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안함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원인(與願印)과 시무외인(施無畏印)은 선정인이나 항마촉지인과는 달리 석가모니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취했던 인상(印相)이었는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처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불상에서는 시무외인과 함께 불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취하고 있는 수인이므로 이 두 수인을 일러서 통인(通印)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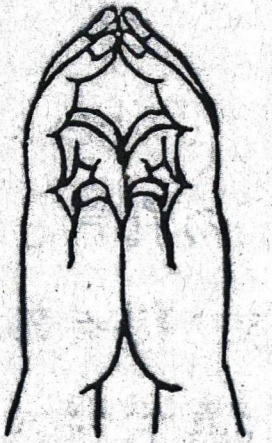
그리고 제개장보살을 상징하는 인상(印相), 즉 결인모양은 바로 제개장인(除蓋障印)이다. 이 결인은 양손을 합장한뒤 양손의 엄지, 무명지(無名指), 약지(藥指)를 손바닥 안으로 집어넣고 인지(人指)와 중지(中指)를 서로 맞대어 세운 모양이다. 번뇌와 장애를 없애는 의미의 결인(結印)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개장보살의 결인을 취하고 제개장보살의 진언을 외워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나막 사만다 보다남 아흐 사트바히타 뷰드가타 프람 프람 람 사바하’ 이것이 제개장보살의 진언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흐,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출현하신 분이시여, 프람 프람 람 람 사바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과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중생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개장보살은 단지 우리에게 방편만을 주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결인을 취하고 진언을 외운다해도 시시때때로 남을 미워하고 양설(兩舌)하여 악업짓는 행동을 버리지 못한다면, 제개장보살의 결인과 진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보살의 가피(加被)는 불보살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행하여서 스스로 받는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문수보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제개장인(除蓋障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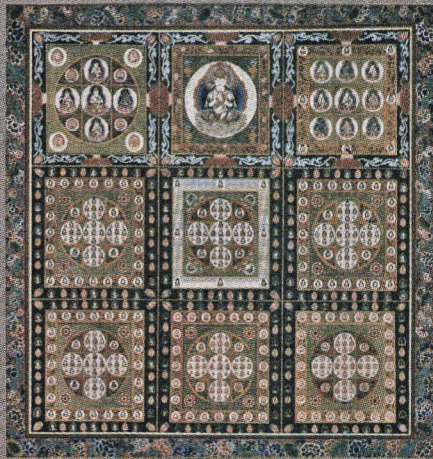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서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장경 만다라 _ 胎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경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진리의 여울

가정 평화(家庭平和)

1. 가족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

세간 사람들아,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나 부부간이나 그 밖의 모든 친속간에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뒤희함이 없어야 하며,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주고 받아 탐내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하며, 항상 상냥한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대하여 아예 다투지 말아야 한다.

(무량수경.無量壽經)

2. 다섯 가지 친목

사람은 마땅히 다섯 가지로서 가족간에 공경하고 친목해야 하

느니, 그 다섯 가지라, 하나는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둘은 항상 착한 말을 하는 것이고, 셋은 서로 유익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넷은 같이 이익을 얻는 것이고, 다섯은 서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장아함경.長阿含經)

3. 행하여 얻는 과보

능히 신을 지켜서 가장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현재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자연히 따르니, 이것은 행해서 얻는 과보이며 신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흥경, 阿難問事佛吉凶經)

불자생활법률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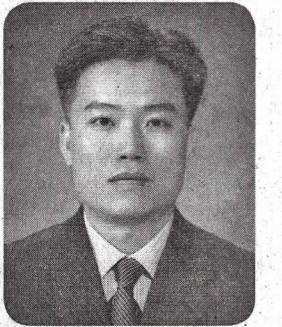
얼마 전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溝渠) 등은 공동 사용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사용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239조).

판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소도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 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앙드레 김 의상 특별전

한국 현대 패션의 선구자, 앙드레 김 의상 특별전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신비를 담은 독특한 문양수(繡)



▲ (고) 앙드레 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지난 4월 24일부터 '한국 패션의 신화 창조, 앙드레 김 의상 자료 기증전'을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실 3관

기증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내년 4월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상 자료 교체 전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2차 앙드레김 의상의 교체전시로 2013년 8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전시는 ‘(주)앙드레 김 디자인아틀리에’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기증받은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다양한 의상 자료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이다.

기증실 전시는 앙드레 김 디자인아틀리에(재현) 코너를 비롯해서 다양한 색상을 활용한 기품 있는 이브닝 드레스 의상과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생전에 완성했던 작품을 토대로 금사로 화려하게 장식한 웨딩드레스, 그리고 개성미 넘치는 일상복 등 17점의 의상을 소개한다. 2013년 12월에는 디자이너 앙드레김의 또 다른 의상 자료를 소개할 계획이다.

앙드레 김 의상은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신비

를 특유의 색감으로 풀어내면서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 창조적인 의상세계를 만들어 왔다.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꽃과 새 등 자연 속 모티브를 활용하여 앙드레김 특유의 황금빛 문양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적 전통 문양을 비롯해서 물고기, 사슴, 용, 나비, 라일락, 수국, 튜립, 장미 등에서 모티브를 따서 응용한 독특한 문양수를 제작하여 의상에 담고 있다. 이 문양들은 앙드레김 의상 세계만의 특징이다. 이번 의상 교체 전시에서 선보이는 의상들은 이런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로 앙드레 김이 추구했던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신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의 주요 구성은 ‘앙드레 김 디자인 아틀리에’로 그가 의상을 디자인하던 아틀리에 공간 재현하였다.

‘독창적 예술의 절정’은 한국과 동양의 신비로

운 전통미를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미로 새롭게 탄생시킨 앙드레김만의 독창적 예술성이 절정을 이루는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색감의 이브닝드레스를 전시한다.

‘영원한 사랑의 시작’은 사랑의 로맨스를 표현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2013)와 2010년 생전에 제작한 작품을 토대로 자수의 색만 바꾼 작품과 기품 있는 턱시도(2010.3.23 세계남성모델대회 패션쇼 작품)가 전시되었다.

‘일상복의 화려한 외출’에서는 역동적 대비와 감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젊은 감성의 ‘타페타 투피스’ 등이 일상복 소개된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교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패션의 전설로 남은 앙드레 김을 만나러 가는 것을 추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김종열 기자.



“특별한 분을 위한 특별한 만남”
인우결혼정보사

매니저 민세정 (이운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차 713호
Tel. 02-569-9792 Cell. 010-5002-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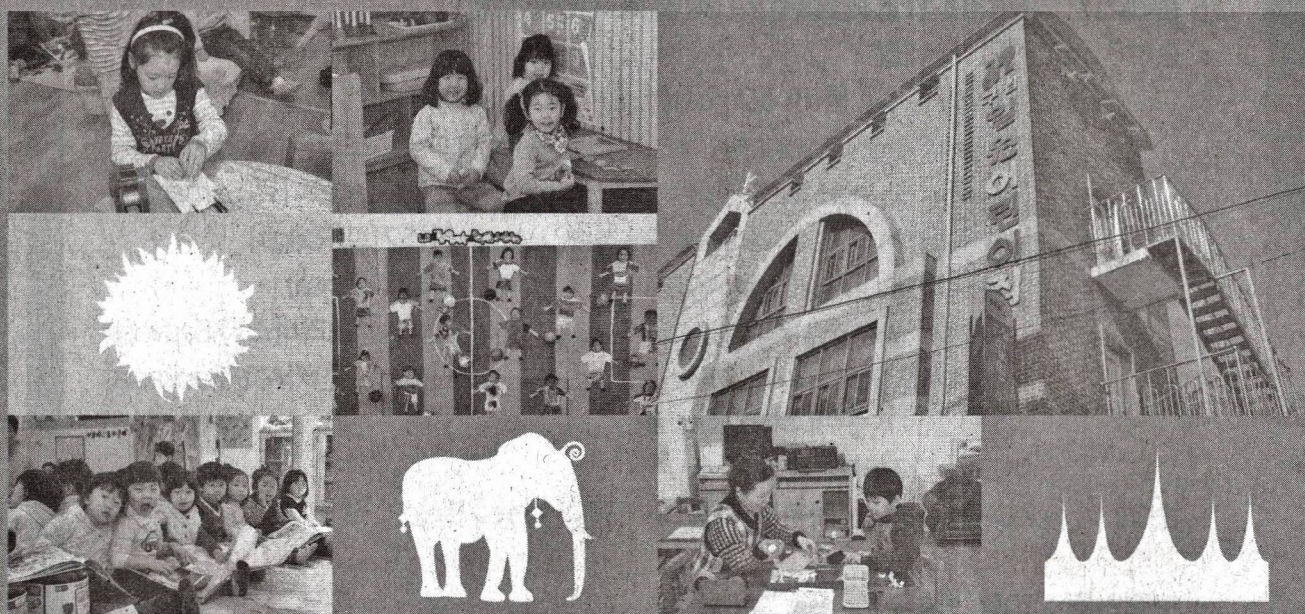


광진데코 (주)
Demolition Environment Construction
www.gjdec.com

지정폐기물 · 폐석면 ·
사업장폐기물 운반 · 처리
비계구조물 설치 · 해체, 건축시공

(445-84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57-3
TEL. 031-366-9565 FAX. 031-360-8987
E-MAIL. juni-1211@hanmail.net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다시 **우리시조** 읽는

쟁반의 조홍감이

지은이: 박인로



▲ 조선시대 기로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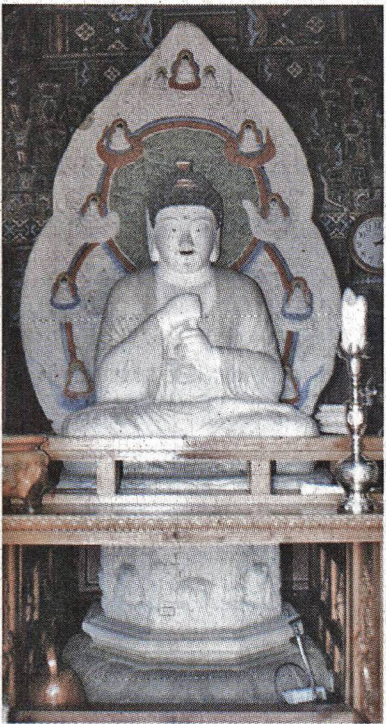
이 시조는 박인로(1561-1642)의 조홍시가 (早紅柿歌)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에 육적이라는 여섯 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원술이라는 사람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꿀을 내왔습니다. 몰래 꿀 세 개를 숨겨 나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사연을 물으니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드리려 하였다고 합니다. '회골고사' 또는 '육적회골'이라고 한다.

쟁반의 조홍감이 고와도 보입니다.
유자는 아니어도 품음직도 합니다만
품어가 반길 분 없으니 그를 설워합니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안이라도 품음직도 하다가는
품어가 반기리 업슬세 글로 설워 하나이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大邱 桐華寺 毘盧庵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대구 팔공산 동화사
시대: 통일신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신라 민애왕(재위 838~839)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 석탑(보물 제247호)과 동시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1.29m의 불상이다.
동근 얼굴은 풍만하고 눈·코·입이 작아지고 있으며, 미소가 사라지고 단아한 모습이다. 8세기 불상에 비해 어깨는 뚜렷하게 좁아졌으며, 가슴은 평평하고, 하체의 처리도 역시 둔화되었다. 이러한 위축되고 둔화된 표현은 9세기 중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상양식이다.
손모양은 비로자나불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형태이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얇은 평행의 옷주름선이 있고, 아랫도리에 있는 U자형 무늬가 특이하다. 부처의 몸 전체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는 배(舟) 모양으로, 가장자리를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광배의 꼭대기 부분에는 삼존불, 양쪽에는 8구의 작은 부처가 배치되어 있다.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를 갖추고 있으며 손상이 거의 없는 9세기에 유행하던 비로자나불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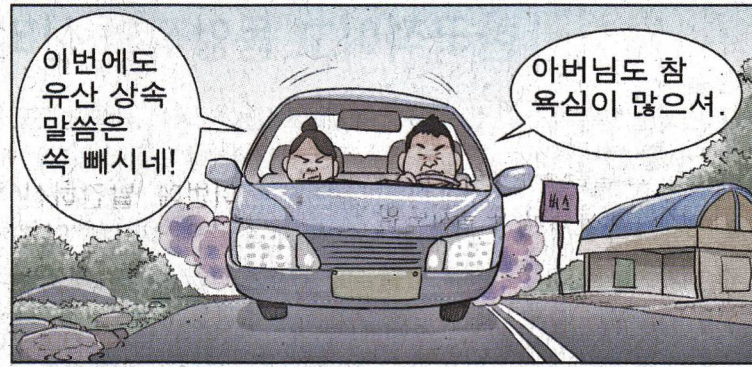
제51화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홀라.kr

탐욕 많은 가족

탐욕 적은 가족



탐욕이 많으면 서로를 비방하게된다.

탐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배를 얻는다.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2장 정계편 379p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8대 성 지 순례

- 순례기간: 2013년 11월 20일(수)~ 30일(토) (10박 11일) / 부산출 · 도착
- 순례지역: 인도 & 네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Umbini)

"부처님께서 무상정각(無相正覺)의 깨달음 얻으신 성불(成佛)의 땅" 보드가야(Bodhgaya)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 녹야원(鹿野苑)" 사르나트(Sarnath)

"세계 최초의 불교사원 왕사성(王舍城) 죽림정사(竹林精舍)" 라즈기르(Rajgir)

"제2차 경전결집 비사리(毘舍離) 대림정사(大林精舍)" 바이살리(Vaishali)

"부처님께서 24번의 하인가를 보내신 사위성(舍衛城) 기원정사(祇園精舍)" 스라바스티(Seavasti)

"부처님께서 도라천에 오리어 설법하신 후 하강하신 삼도보계(三道寶階) 산카시아(Sankasia)

"부처님 열반지" 쿠쉬나가르(Kushinagar)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 순례비: 2,690,000원(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 계약금 입금구좌: 부산은행 023-01-037333-6 포커스투어 / 계약금 1인 100,000원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모집대상: 승직자, 교도, 교도 가족
- 신청기간: 2013년 9월 30일까지
- 신청 및 기타문의: 불교총지종 정각사 ☎ 051_552_7901
정각사 법상정사 H.P 010_5521_3400
포커스투어 ☎ 051_463_4144 H.P 010_9763_0700

우리시대 선지식들에 대한 이야기

불교서적 에세이

<인생을 낭비한 죄>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그대에게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준

“수행이란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하는 것입니다. 높고 싶고 편하고 싶고 게으른 것은 꼭 익은 습관이기에 때문에 설게 만들어야죠. 새벽 두 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 아무리 자고 싶어도 정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짜증나게 하더라도 잘 들어주는 것은 선 습관이니까 익도록 만드는 게 수행이에요.”

충주 석조사 해국스님의 말씀입니다.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애써 낯선 것을 취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스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선지식 중 한 분인 해국스님이 말씀하셔서인지 더욱 와 닿는 설명이었습니다.

선지식이 하는 말은 모두 마음에 아로새겨집니다. 보통 사람이 말하면 의례 하는 말로 들리는데 선지식이 하면 정말 중요한 말처럼 여겨지면서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선지식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기도 했고, 일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저자는 불교 책 전문작가 박원준입니다. 박원준은 월간 《해인》에서 오랫동안 글을 써왔으며 전 종정인 법전 스님의 수행기와 비구니의 지표 인홍 스님의 일대

기 《길 찾아 길 떠나다》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 《인생을 낭비한 죄》에는 성철스님, 청화스님, 송산스님 등 우리 시대의 대표적 수행자를 비롯해 이 책이 아니라면 만나기 어려운 수행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원준스님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분입니다. 산중에서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스님으로 나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치열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한 철 한데에 비닐 천막을 치고 주먹밥을 먹으며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했고, 불령산 낭떠러지 위에 좌복 하나 가져다 놓고 삼 년 결사를 나기도 했으며, 지금도 결제와 해제를 가리지 않고 하루 스물한 시간 가행정진 중인데, 그렇게 산 세월이 스물여섯 해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구도심입니다. 수행은 모름지기 이렇게 평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송산스님의 근면한 또한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스님은 전날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다음 날 새벽 한 시엔 일어나 천팔십 배를 하는 게 하루 일과였다고 합니다. 기차만 며칠 타고 가는 중에는 열차 통로에 담요를 깔아놓고 천팔십 배를 하겠다고 하니 앞에서 해국스님께서 수행자는 선 것을 익히는 사람들라고 했는데 그 말에 꼭 들어맞는 수행자였습니다.

청화스님의 자비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청화스님이 태안사에서 계실 때 어떤 보살이 지아비를 잃고는 그 상심이 컸는지 보는 사람마다 볼잡고 눈물바람을 보였는데, 어느 날 법문을 끝내고 나오는 청화스님의 손을 잡고 또 그렇게 했답니다. 청화스님은 보살님의 손을 잡아주면서 자애로운 모습으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은 청화스님의 위로를 받은 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적처럼 그 슬픔에서 벗어났고, 이후에는 더 이상 지아비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울지도 않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화스님의 자비심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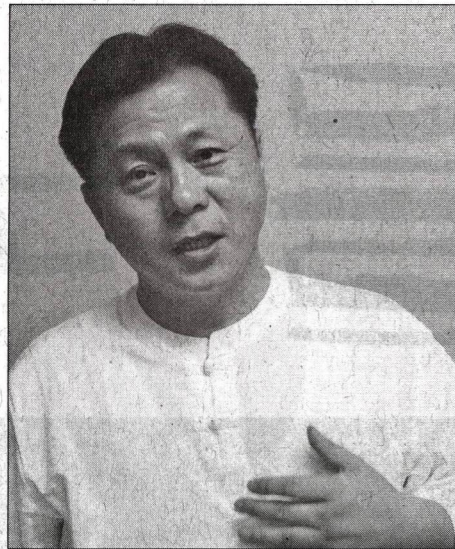
선지식 한 분을 전전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선지식을 두루 만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식들이 전하는 귀한 법문과 치열한 일상은 내 삶을 돌아보게 했으며 삶의 이정표가 돼주었습니다.

박원준/김영사/13000원

자유기고가 김은주

밀교연구소 소장 법경 정사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 의궤 염송』 발간



▲ 밀교 연구소장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가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인 『육자의궤 염송』을 발간했다. 또한 지난 8월 소장으로 취임한 법경 정사의 밀교연구소 중, 장기적인 연구 발전 계획을 알아보는 특별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

먼저 밀교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능력에 비해 과분한 직무를 맡겨 주신 효강 종령님과 교도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밀교연구소에서 해왔던 많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신 『육자의궤 염송』은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 정통 밀교 불교총지종은 정확한 의궤와 엄격한 삼밀수행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총지종에서 행하는 삼밀수행법의 의궤를 『육자의궤염송』이라 합니다. 이 육자의궤염송은 총지종의 종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행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궤입니다. 그러나 종도들이 매일 행하는 육자의궤염송일지라도 염송방법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밀교연구소는 종도 뿐 만 아니라 밀교에

처음 입문하는 불자들이 총지종의 수행법과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다.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육자의궤염송』은 주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을까?

▶ 이 책은 ‘육자의궤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이란?’, ‘총지종은 왜 비밀불교[밀교]인가?’, ‘총지종이 재가종단을 표방한 이유’, ‘총지종의 본존(本尊)’, ‘총지종이 불상을 모시지 않고 진언(眞言)니를 본존으로 모시고 있는 이유’, ‘총지종의 법당(法堂)을 서원(誓願堂)이라고 부르는 이유’, ‘총지종의 수행법’ 등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 아니라 ‘진언(眞言)

중이신지요?

▶ 개정된 49재 천도불사법요는 그동안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적합한 의궤법 개발을 위해 이미 한차례의 종책토론회를 거쳐 개정되었고, 제2차로 ‘불공법에 대해 결집대회’를 구성 중입니다. 또한 강공을 통해 집중적인 집공 습의(염불식 독송과 법구 사용)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교연구소가 발간한 주요 연구 성과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지난 2000년부터 종단 홍보용 리플렛으로 부터 이번에 발간하는 육자의궤염송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로 강공 및 강의교재에서 ‘사원의 회계업무’에 이르기 까지 현장과 강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번 책을 합치면 13~15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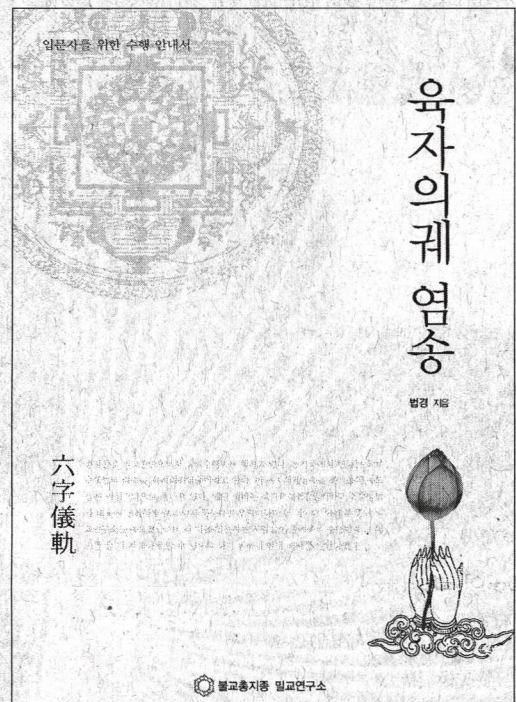
거의 해마다 한 종 이상의 도서를 발간하셨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 현재 총지종보에 연재중인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는 약20회 정도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는 밀교입문서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단행본으로 펴낼 예정입니다. 밀교의 주요 경전인 ‘대일경, 금강정론 요론’ 및 ‘대승장엄보왕경 용어 해설집’ 경전 관련 연구서와 ‘종조법설집’ 개정 증보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전국 교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소중한 연구 성과들을 내시는 법경 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밀교연구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연구소가 되었으면 하고,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편집, 정리는 김종열 기자.



▲ 이번에 발간하는 『육자 의궤 염송』

이란?’,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念珠)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실었다. 부디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진언수행자들의 수행과 불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개정된 49재 천도 불사법요의 보급은 원할하게 진행

● 불교총지종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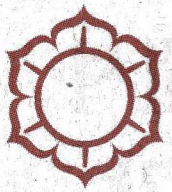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 총지종 교도 특별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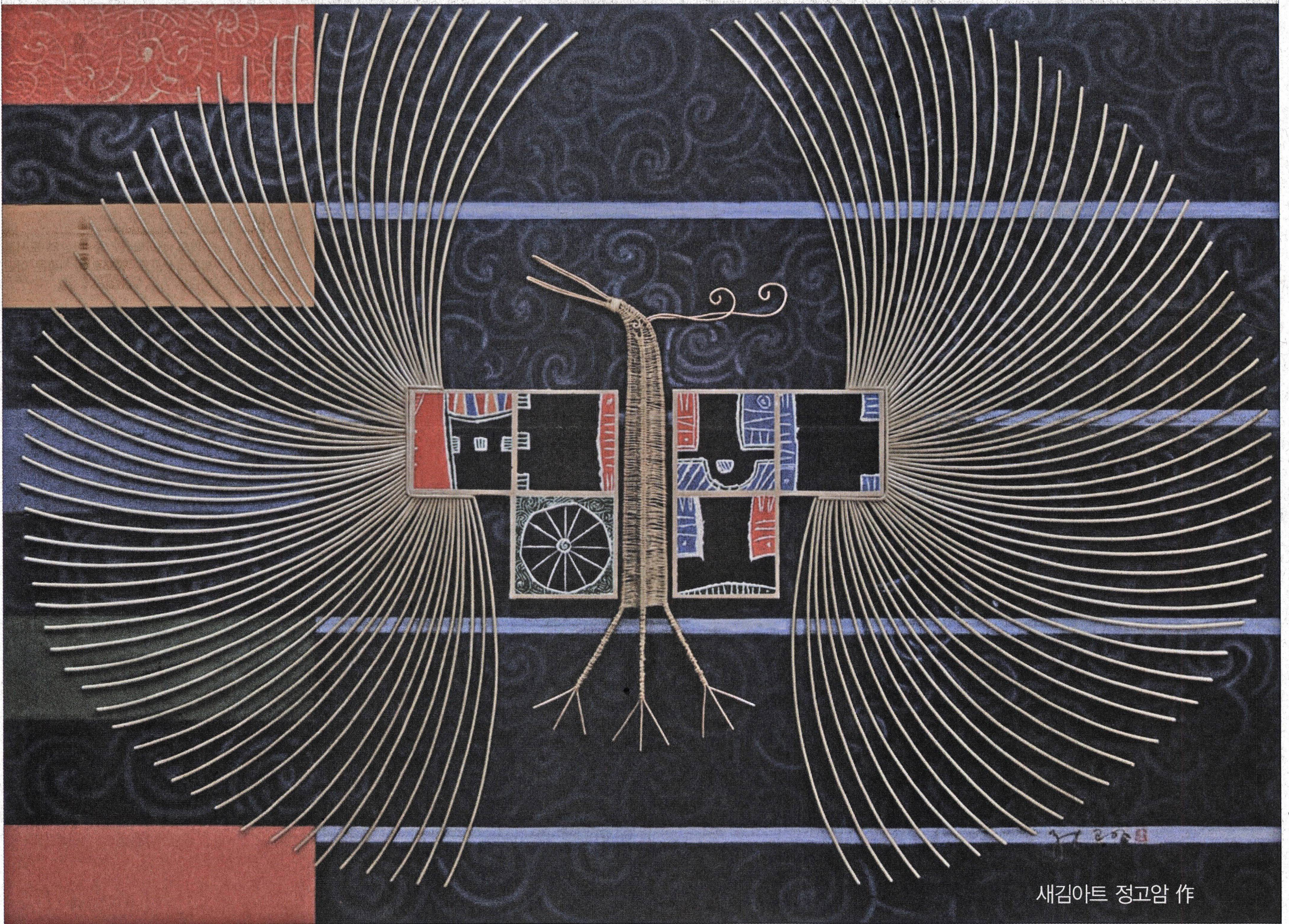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제3회 통일음악예술제

정전 60주년

평화를 노래하다



새김아트 정고암 作

기획 _ 아카사엔터테인먼트

▶▶ **2013. 9. 28** 토요일 14:00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주최 · 주관  **불교총지중**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